

이광수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 연구*

박 상 현**

(e-mail: koreaswiss@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명치천황어제근역」의 전(全) 작품
 3.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
 4. 맺음말
-

1. 머리말

춘원(春園) 이광수는 1941년 5월에 「이<스>船」¹⁾라는 제목 하에 명치천황(明治天皇)의 와카(和歌)²⁾ 6수(首)를 조선어로 옮겼고, 같은 해 7월에는 「明治天皇御製謹譯」(이하, 「명치천황어제근역」)이라는 타이틀 하에 명치천황의 와카 17수, 그해 9월에는 18수를 각각 조선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 와카를 모두 『신시대(新時代)』³⁾에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근대장편소설인 『무정(無情)』을 쓴 이광수가 제국일본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다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

1) ‘병선’ 혹은 ‘군함’을 말한다.

2) 천황이 손수 지은 와카를 보통 ‘御製’라고 부른다.

3) 신시대사가 1941년 1월에 태평양전쟁이라는 시국적 배경에서 창간한 대중잡지. 여기에는 전쟁 및 전쟁에 협력하는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번역한 작품이 다름 아닌 명치천황이 직접 지은 와카(御製)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어국문학계와 일어일문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임종국(1966)의 『친일문학론』⁵⁾, 이경훈(1988)의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⁶⁾, 최현식(2008)의 「이광수와 ‘국민시」⁷⁾가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주로 이광수가 왜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는가 곧 번역의도를 분석한 것이거나, 명치천황의 와카를 번역한 텍스트인 「명치천황어제근역」에는 어떤 와카가 실려 있는가 곧 번역작품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명치천황어제근역」⁸⁾에 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구자는 박상현이다. 우선 그(2014a)는 「춘원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 연구」에서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그가 번역문에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동시에 제시하는 번역 방식 곧 대역(對譯)을 선택한 필연성과 함께, 와카의 리듬인 5음(音)·7음·5음·7음·7음을 준수하면서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긴 필연성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즉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대역 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가 이 방식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 요구되었던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번역문에서 조선어역이 담당)와 일본어 보급(번역문에서 일본어원문이 담당)에 적합한 번역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준수하면서 조선어역을 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거기에는 와카 창작⁹⁾ 등을

4) 참고로 일본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행본은 다수 있지만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広瀬誠(1992) 「昭和天皇御製の語彙と御詠風—明治天皇御製と対比して」 『富山女子短期大学紀要』、富山女子短期大学.

田中綾(2007) 「明治天皇御製をめぐる昭和十年代—文部省『国体の本義』等と御歌所所員『明治天皇御製謹話』との対比」 『日本近代文学会北海道支部会報』、日本近代文学会北海道支部.

5) 임종국(1983)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초판 1966). 445-446쪽.

6) 이경훈(198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4쪽.

7) 최현식(2008) 「이광수와 ‘국민시」 『상허학보』, 상허학회. 324쪽.

8)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텍스트인 「いくさ船」(1941년 5월)와 「명치천황어제근역」(동년 7월) 및 「명치천황어제근역」(동년 9월)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으로 앞으로 「명치천황어제근역」을 사용한다.

9) 이광수는 1939년 2월에 「折りにふれて歌へる」(『동양지광(東洋之光)』 수록)라는 타이틀로 창작 와카 9수를, 1942년 1월에는 「元日」(『신시대』 수록)라는 제목으로 창작 와카 7수를 각각 발표했다. 또한 1941년 1월에는 『同胞に寄す』(박문서관)을 출간했는데, 이 단행본에도 8수의 창작 와카를 실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折りにふれて歌へる」에 실린 창작 와카만 참고로 인용한다.

통해 와카의 리듬이 이광수에게 내면화되어 있었던 점, 명치천황이 손수 읊은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라는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이광수의 존경과 경외가 있었던 점이 들어간다.¹⁰⁾

다음으로 그(2014b)는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사적 위치 연구-춘원(春園) 이광수의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에서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이 갖고 있는 번역사적 위치를 고찰했다. 즉 제국일본은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를 보다 널리 보급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국일본의 요청에 서두수와 김억 등은 와카나 일본의 근대시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번역문에 일본어원문과 함께 조선어역을 제공하는 대역 방식으로 응답했다. 물론 이때 일본어원문은 일본어 보급의 역할을, 조선어역은 황국신민화의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층적인 역할을 하는 번역 방식을 구체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 곧 그 전범을 보여준 것이 다름 아닌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이었다. 이것이 바로 일본운문작품의 조선어역에서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이 갖고 있는 번역사적 위치라고 지적했다.¹¹⁾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수가 번역 텍스트인 「명치천황어제근역」을 발표했다 할 때, 그가 무엇을 번역대본으로 했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과연 그는 명치천황이 손수 읊었다는 10만수의 방대한 와카¹²⁾를 전부 감상한 후, 그 가운데서 총 41수의 와카를 엄선하여 조선어로 발췌·번역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누군가에 의한 발췌된 명치천황의 와카 중에서 다시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조선어로 옮겼던 것일까?

(1) 天地のいづくはわが家ならざらむ仰ぐ御光果てしあらねば

(2) 好き人の文読む程に何時となく念仏申す身となりけり

(3) 韓土の二千万の民草と君わが君と仰ぎまつらむ

(4) とこしへの濁りに喘ぐ黄河の流も澄みて君が代となる

(5) 常闇の我が魂の夜も明けぬらむかの雲の端に映ゆる曙

(6) 恩愛の羈絶ちてぞ恩愛のえにしのものを救ひこそせめ

(7) われと云ふかたきを討ちて四十八年そのたゝかひは去年も今年も

(8) まごゝろのしめす真にひたすらにわれは生きなむその日その日を

(9) ひととせを又なすなくて過ごしけりあくる年はと又誓ひつゝ

10) 박상현(2014a) 「춘원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 연구」 『일본학연구』 제41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91-211쪽.

11) 박상현(2014b)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사적 위치 연구-춘원(春園) 이광수의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171-172쪽.

12) 明治会(1941) 『明治天皇御集』 新潮社, 1-258頁.

여기에는 명치천황의 와카 10만수 가운데 1687수가 엄선되어 있다.

2. 「명치천황어제근역」의 전(全) 작품

명치천황은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천황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재위(在位) 중에 약 10만수에 달하는 와카를 창작했다고 전해진다. 이광수는 우선 1941년 5월에 명치천황의 와카 6수를 조선어로 옮겨 「いくさ船」(I)라는 제목 하에 발표했다.¹³⁾ 다음으로 그는 같은 잡지에 「명치천황어제근역」이라는 타이틀 하에 1941년 7월(II)에는 17수, 9월(III)에 18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각각 조선어로 번역했다.¹⁴⁾ 이광수가 조선어로 옮긴 명치천황의 와카 총 41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I : 「いくさ船」(1941년 5월)

明治天皇御製

(海軍에 關하여 지으신것 몇首)¹⁵⁾

(1)16)戦にかちてかへりいくさ船けふもかゝれりしながはの沖

謹譯. 싸흠싸호아 이기고 돌아오는 싸호는배들 오늘도 들어오네 시나가와 앞바다

(2)すゝめてふ旗につれつゝいくさ船かろくも動く浪の上かな

謹譯. 나아가라는 旗발의 군호 따라 싸호는배들 가벼이도 달리는 바다의 물결이어

(3)あとの船うち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む

謹譯. 원수의 배를 쳐물려치고 나서 사흠아비들 가없는 난바다의 달마라고 있으리

(4)なみ遠くてらすともしびかゝげつゝ仇まもるらむわがいくさぶね

謹譯. 멀리 물결을 불들어 비취면서 (기나긴밤에) 敵兵을 지키리라 우리 싸흠하는배

(5)港江に万代よばふ声すなりいさををつみし船やいりくる

謹譯. 浦口 머리에 万歳万歳 부르는 소리 들리네 勝戰하야 功세운 배들어오나브다

(6)いさましくかちどきあげて沖つ浪かへりし船を見るぞうれしき

謹譯. 기운차게도 승전鼓喊 지르며 물결 허치고 돌아오는 배 보니 깃뚝도 깃블시고

謹譯 香山光郎¹⁷⁾

II : 「명치천황어제근역」(1941년 7월)

義¹⁸⁾

13) 그는 「いくさ船」 아래에 소제목으로 ‘明治天皇御製’를, 그리고 다시 그 밑에 ‘海軍에 關하여 지으신 것 몇 首’를 두었고, 번역을 끝낸 후에는 ‘謹譯 香山光郎’라고 쓰고 있다.

14) 이광수는 번역을 마친 후에 각각 ‘謹譯 香山光郎(1941년 7월, II)’ 그리고 ‘香山光郎 謹譯(1941년 9월, III)’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香山光郎’는 이광수의 창씨개명이다.

15) 띄어쓰기와 표기 등은 원문 그대로. 이 소제목은 이광수가 붙인 것임.

16) 괄호 번호는 편의적으로 인용자가 붙인 것임. 이하 동일.

17) 이광수(1941a) 「いくさ船」 『신시대』 신시대사. 20-21쪽.

- (1)身にあまるおも荷なりとも国の為人のためにはいとほざらなむ
 내힘에 겨운 무거운 짐이라도 나라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는 싫여하지아니하리라
- (2)おのが身はかへりみずして人のため尽すぞひとの務なりける
 제몸을랑은 돌아보지않고서 남을 위하여 힘다함이 사람의 구실인줄 알아라
 をりにふれて
- (3)天をうらみ人をとがむることもあらじわがあやまちを思ひかへさば
 하늘 원망코 남의 탓을 하올줄 바이없으니 이내 몸의 허물을 돌려생각하오면
 述懷
- (4)ひろき世にたつべき人は数ならぬことに心をくだかざらなむ
 넓은세상에 나설만한 사람은 하잘것없는 일일래어 마음을 괴롭히지않으리
 をりにふれて
- (5)早苗とるしづが菅笠いにしへの手ぶりおぼえてなつかしきかな
 논에 모내는 農夫의 도롱삿갓 옛날모양을 보는듯한저이고, 그리도 情다워라
 鏡
- (6)国といふくにのかゝみとなるばかりみがけますらを大和だましひ
 나라라하는 나라들의 거울이 도일 만하게 닦아라 사내들아 야마도의 마음을
 人
- (7)かくばかりことしげき世にたへぬべき人をえたるがうれしかりけり
 오늘날 같이 일많은 세상에 견디어나갈 사람을 얻사음이 깃사온 일이러라
 農夫
- (8)山田もるしづが心はやすからじ種おろすより刈りあぐるまで
 논밭지키는 農夫의 마음 편할날이 없으리 씨를 뿌릴때부터 거둬들이기까지
 運動
- (9)ことしあらば軍のみちにたゝむ身は野をも山をもふみならさなむ
 일있을때면 싸움하는 일 말을 이몸이어든 들에서나 山에서나 달리기 이키리라
 心
- (10)かざらむと思はざりせばなかなかにうるはしからむ人のこゝろは
 꾸미리라는 생각곧 아니하면 어지간히들 아름다왔을 것을 사람의 마음이어
 光陰如矢
- (11)思ふことつらぬかむ世はいつならむ射る矢のごとくすぐる月日に
 생각한 일을 일우어지을날이 그 언젠든가 쏜살같이 光陰은 흘러가는데
 神祇
- (12)いつはらぬ神のこゝろをうつせみの世の人みなにうつしてしがな
 거짓이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수없는 온 세상사람의게 다 옮겨나주었으면

18) 이 소재목은 명치천황이 붙인 것임. 이하 같음.

虫声非一

(13)さまざまの虫のこゑにもしられけりいきとしいける物のおもひは
가지가지의 버리지소리로도 알아볼것이, 목숨있는 万物の 생각하는 생각을
神祇

(14)わがくには神のすゑなり神祭る昔の手ぶり忘るなよゆめ
우리나라는 검님의 자손이니 검님위하는 예부터 전하는법 잊을시라 꿈에나
를りにふれて

(15)みちみちにつとめいそしむ国民の身をすくよかにあらせてしがな
제길따라서 맡은일 힘써하는 나랏백성의 몸성하게 튼튼케 하여주고 싶어라
寄国祝

(16)万民こゝろあはせて守るなる国にたつ身ぞ嬉しかりける
모든백성이 마음을 모호아서 지키는나라 이나라에선 이몸이 기쁘고 기뻐시고
夢

(17)たらちねの親のみまへにありとみし夢のをしくも覚めにけるかな
사모하옵는 어머님을 뵈옵고 있다고 보던 그꿈이 아깝게도 깨어져 버렸세라
謹譯 香山光郎¹⁹⁾

Ⅲ : 「명치천황어제근역」 (1941년 9월)

正述心緒

(1)よもの海みなはらからと思ふ世になど波風のたちさわぐらむ
천하백성이 모다 동포형제로 살세상이 어쨌다 바람물결 이리로 설레는고
를りにふれて

(2)久方のあめにのぼれるこゝちしていすゞの宮にまるるけふかな
높고 거룩한 하늘에 오르옵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즈의 神宮에 뵈옵는 오늘이어
神祇

(3)神垣に朝まゐりしていゝるかな国と民とのやすからむ世を
검님뵈신데, 아침에 절하살고, 비옵는 말씀, 나라와 백성들이, 태평하올 세상을
思

(4)国民のうへやすかれとおもふのみわが世にたえぬ思なりけり
우리 백성이, 평안하여지라는 오직 한 생각, 평생에 끄님없는 나의 생각이랴다
折にふれて(明治三十七年日露戦争中)

(5)夢さめてまづこそ思へ軍人むかひしかたのたよりいかにと
꿈이 깨어서, 맨처음 생각기는, 우리군사들, 나아가는 곳에서, 오는기별 어떤가

(6)おのが身にいたでおへるもしらずしてすゝみも行くかわが軍びと
제 몸이 맞아 중한 상처 생김도 모르고서리, 앞으로앞으로만 나아가는 내군사

19) 이광수(1941b) 「明治天皇御製」 『신시대』 신시대사. 32-35쪽.

(7)戦のにはのおとづれいかにぞとねやにも入らずまちにこそまで

전장으로서, 무슨 기별 오나고, 밤이 깊도록, 자리에 들지않고 고대고대하여라

(8)石だゝみかたきとりでも軍人みをすてゝこそうち砕きけれ

돌로 쌓은, 굳고굳은 城壘도, 우리군사의, 몸버려 부딪쳐서, 깨트려내었어라

(9)久しくもいくさのにはにたつひとは家なる親をさぞ思ふらむ

오랜세월을, 전장에서 싸호는 우리 군사들, 고향에둔 아버지, 생각간절할것을

(10)はからずも夜をふかしけりくのために命をすてし人をかぞへて

어느사이에, 한밤을 새었어라, 나라위하야, 목숨바친 사람의, 수를 세이노라고
述懷

(11)末つひにならざらめやは国のため民のためにとわがおもふこと

마침내에야 아니될줄 있으리, 나라위하야 백성을 위하야서 하는 나의생각이
民

(12)国の為いよいよはげめちよろづの民もこゝろをひとつにはして

나라 위하야, 힘쓸 때는 왔어라, 오늘야말로 만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도모아서
誠

(13)とき遅きたがひはあれどつらぬかぬことなきものは誠なりける

비록 이른수 더딘 수는 있어도, 반듯이 한번, 일우고야 말기는 참된 마음이러라
をりにふれて

(14)思ふことつらぬかずしてやまぬこそ大和をのこのこゝろなりけれ

마음먹은일, 일우지아니하고는, 말지않는 이, 야마도 사나히의, 마음이라 하더라
蝸牛

(15)世のさまはいかゞあらむとかたつぶりをりをり家を出でて見るらむ

세상형편이, 어떻게 되는가고 저달팽이는, 때때로 집을 나와 돌아보나 보도다
山家鄰

(16)谷川のおなじ流の水汲みて鄰へだてぬみやまべのさと

골짜구니에, 흐르는 한 시내의, 물길어먹고, 너나 없이 사노라, 산골의 마슬사람
鶴思子

(17)まへになりうしろになりし雛まるたづの心のあはれなるかな

앞을 섰다가, 뒤로도 따르면서, 새끼 지키는, 두루미의 마음여, 가엽기도 한지고
歌

(18)まごゝろをうたひあげたる言の葉はひとたびきけば忘れざりけれ

숙 마음을, 그대로 읊어내인 참된 노래는, 한번 들어 다시는, 잊혀지지않더라

香山光郎 謹譯²⁰⁾

20) 이광수(1941c) 「明治天皇御製」 『신시대』 신시대사. 42-45쪽.

그렇다면 이광수는 방금 인용한 「명치천황어제근역」, 곧 I·II·III에 실려 있는 총 41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무엇을 번역대본으로 삼았을까? 아쉽게도 그는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에 관한 정보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단 가설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그가 명치천황이 남긴 10만수에 달하는 방대한 와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감상한 후, 거기서 총 41수의 와카를 엄선하여 조선어로 발췌·번역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발췌되어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 중에서 자신이 다시 취사선택하여 조선어로 옮겼을 가능성이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전자의 가능성보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후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에 대해 좀 더 고찰해보자.

3.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

필자는 이광수가 이미 발췌되어 있던 명치천황의 와카집(和歌集) 같은 것을 참조하여 번역 텍스트인 「명치천황어제근역」을 발표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을 추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광수가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발췌한 번역대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명치천황의 와카를 발췌하여 편집한 것을 보통 ‘明治天皇御集’라고 명명하는데, 우선 일제강점기에 내지(内地)에서 출간된 것으로는 다음 <표1>과 같은 것이 있다.

<표1>

기호	편집(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A	臨時編纂部	明治天皇御集	出版者不明	1919
B	文部省	明治天皇御集	文部省	1922
C	高久貞義	明治天皇御集暗誦百首	國民新聞社	1923
D	佐佐木信綱	明治天皇御集謹解	朝日新聞社	1923
E	三室戶敬光	明治天皇御集： 類題謹解	中央歌道會	1925
F	舟越石治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内外書房	1929
G	御集奉誦普及會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御集奉誦普及會	1929
H	三室戶敬光	謹解類題明治天皇御集	忠君愛國山水會	1932

			出版部	
I	国民精神振興会 出版部	明治天皇 昭憲皇太后御集	国民精神振興会 出版部	1933
J	国民精神振興会	明治天皇御集	国民精神振興会	1934
K	祭祀学会	明治天皇御集	祭祀学会	1935
L	富士言靈会	明治天皇御集：類題	大和屋書店	1935
M	岩波書店	明治天皇御集(岩波文庫) ：宮内省藏版	岩波書店	1938
N	明治会	明治天皇御集(新潮文庫) ：宮内省藏版	新潮社	1939
O	明治神宮社務所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明治神宮社務所	1940
P	佐佐木信綱	明治天皇御集謹解	第一書房	1941
Q	武田祐吉	明治天皇御集： 類纂謹註	明治書院	1943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에 내지에서 출간된 것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서 주로 유통됐다고 추정되는 것²¹⁾으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이 있다.

<표2>

기호	편집(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소장처
B	文部省	明治天皇御集	文部省	1922	중앙도서관
D	佐佐木信綱	明治天皇御集謹解	朝日新聞社	1923	중앙도서관·서울대
F	舟越石治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内外書房	1929	중앙도서관·서울대
M	岩波書店	明治天皇御集 (岩波文庫) ：宮内省藏版	岩波書店	1938	중앙도서관·서울대
O	明治神宮社務所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明治神宮社務所	1940	중앙도서관
P	佐佐木信綱	明治天皇御集謹解	第一書房	1941	중앙도서관·서울대

방금 검토해본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내지에서 간행된 것(<표1> 참조)과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널리 유통되었을 것(<표2> 참조)을 같이 살펴보면, 결국 <표1>과 <표2>에서 겹치는 것은 B의 『明治天皇御集』, D의 『明治天皇御集』

21) 여기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과 서울대도서관(이하, 서울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를 그 주요 근거로 삼았다. 참고로 국회도서관도 검색해보았으나, ‘明治天皇御集’에 관련된 도서는 보이지 않았다.

集謹解』, F의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M의 『明治天皇御集(岩波文庫): 宮内省藏版』, O의 『明治天皇御集 昭憲皇太后御集』, P의 『明治天皇御集謹解』이다. 따라서 이광수는 이들 도서 가운데서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 대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필자는 이 중에서도 M의 궁내성장관(宮内省藏版) 『明治天皇御集』가 가장 유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와나미문고(岩波文庫)로 식민지 조선에 널리 유통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 필자는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과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²²⁾를 면밀히 비교·분석해보았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너무나도 놀랍게도 「명치천황어제근역」에 번역·소개되어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 총 41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다만 「いくさ船」(I)에는 ‘明治天皇御製-海軍에 関하여 지으신 것 몇 首’라는 통일된 제목(類題) 하에 명치천황의 와카 6수가 번역·소개되어 있었는데,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는 다음과 같이 6수의 와카에 각각 독립된 제목이 달려 있었다.

海上船

(1) 戦にかちてかへりしいくさ船けふもかゝれりしながはの沖

軍艦

(2) すゝめてふ旗につれつゝいくさ船かろくも動く浪の上かな

海上月

(3) あたの船うちし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む

軍艦

(4) なみ遠くてらすともしびかゝげつゝ仇まもらむわがいくさふね

折りにふれて

(5) 港江に万代よばふ声すなりいさををつみし船やいりくる

凱旋觀艦式に臨みて

(6) いさましくかちどきあげて沖つ浪かへりし船を見るぞうれしき²³⁾

이것은 이광수가 ‘海上船’ 이하 ‘凱旋觀艦式に臨みて’까지의 제목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明治天皇御製-海軍에 関하여 지으신 것 몇 首’와 같은 타이틀을 붙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가 원문(原文)에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것은 「명치천황어제근역」을 읽을 조선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아래와 같은 이광수의 ‘개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2) 여기에는 명치천황의 와카 1687수가 정선(精選)되어 있다.

23) 岩波書店(1938) 『明治天皇御集(岩波文庫): 宮内省藏版』. 37-126頁.

제2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인용한 「명치천황어제근역」(Ⅲ)에는 ‘折にふれて²⁴⁾(明治三十七年日露戦争中)’라는 타이틀 하에 「夢さめてまづこそ思へ軍人むかひしかたのたよりいかにと」(꿈이 깨어서, 맨처음 생각기는, 우리군사들, 나아가는 곳에서, 오는기별 어쩔가), 「おのが身にいたでおへるもしらずしてすゝみも行くかわが軍びと」(제목이 맞아 중한 상처 생김도 모르고서리, 앞으로앞으로만 나아가는 내군사) 등과 같은 와카가 총 5수 실려 있는데,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는 그 제목이 ‘折にふれて’로만 나와 있다. 곧 ‘明治三十七年日露戦争中’이 부연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부연 설명도 결국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折にふれて)’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창작 배경 등을 식민지 조선의 독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음에 틀림없다.

둘째, 「명치천황어제근역」에 실려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는 기본적으로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いさ船」(Ⅰ)라는 타이틀 하에 게재되어 있는 6수의 와카는 1896(명치29년)에서 1905(명치38년) 사이에 제작된 것인데, 그것이 시대순으로 실려 있다.²⁵⁾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명치천황어제근역」과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

명치천황의 와카	「명치천황어제근역」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
戦にかちてかへりいさ船けふもかゝれりしながはの沖	1896년 (명치29)	37쪽
すゝめてふ旗につれつゝいさ船かろくも動く浪の上かな	1903년 (명치36)	67쪽
あとの船うち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む	1904년 (명치37)	80쪽
なみ遠くてらすともしびかゝげつゝ仇まもるらむわがいさふね	1904년 (명치37)	93쪽
港江に万代よばふ声すなりいさををつみし船やいりくる	1904년 (명치37)	101쪽
いさまくちかちどきあげて沖つ浪かへりし船を見るぞうれしき	1905년 (명치38)	126쪽

그리고 이런 경향은 기본적으로 「명치천황어제근역」(Ⅱ)에 수록되어 있는 17수에도, 「명치천황어제근역」(Ⅲ)에 게재되어 있는 18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음 <표4>와 같이 시대 순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

24) ‘折にふれて’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의 의미이다.

25) 참고로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서는 37쪽에서 126쪽까지 페이지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명치천황어제근역」에 실려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는 기본적으로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것은 그대로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 연동되어 있다. 곧 「명치천황어제근역」에 게재되어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는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서는 페이지순으로 나와 있다. <표4>는 「명치천황어제근역」(Ⅱ)을 재정리한 것이다.

<표4> 「명치천황어제근역」과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

명치천황의 와카	「명치천황어제근역」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
身にあまるおも荷なりとも国の為人のためにはいとほざらなむ	1909년 (명치42)	196쪽
おのが身はかへりみずして人のため尽すぞひとの務なりける	1909년 (명치42)	196쪽
^{あめ} 天をうらみ人をとがむることもあらじわがあやまちを思ひかへさば	1910년 (명치43)	197쪽
ひろき世にたつべき人は数ならぬことに心をくだかさらなむ	1909년 (명치42)	193쪽
早苗とるしづが菅笠いにしへの手ぶりおぼえてなつかしきかな	1904년 (명치37)	77쪽
国といふくにのかゝみとなるばかりみがけますらを大和だましひ	1904년 (명치37)	92쪽
かくばかりことしげき世にたへぬべき人をえたるがうれしかりけり	1904년 (명치37)	95쪽
山田もるしづが心はやすからじ種おろすより刈りあぐるまで	1904년 (명치37)	96쪽
ことしあらば軍のみちにたゝむ身は野をも山をもふみならさなむ	1904년 (명치37)	97쪽
かざらむと思はざりせばなかなかにうるはしからむ人のこゝろは	1904년 (명치37)	97쪽
思ふことつらぬかむ世はいつならむ射る矢のごとくすぐる月日に	1904년 (명치37)	98쪽
いつはらぬ神のこゝろをうつせみの世の人みなにうつしてしかな	1911년 (명치44)	217쪽
さまさまの虫のこゑにもしられけりいきといける物のおもひは	1911년 (명치44)	213쪽
わかくには神のすゑなり神祭る昔の手ぶり忘るなよゆめ	1910년 (명치43)	209쪽

みちみちにつとめいそむ国民の身をすくよかにあらせてしかな	1910년 (명치43)	210쪽
万民こゝろあはせて守るなる国にたつ身ぞ嬉しかりける	1910년 (명치43)	209쪽
たらちねの親のみまへにありとみし夢のをしくも覚めにけるかな	1910년 (명치43)	208쪽

결국 이와 같은 두 가지 점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즉 이광수는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를 참조해서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명치천황어제근역」에 실었다. 또한 그는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 실려 있는 와카를 페이지 순서대로 감상하면서 조선어로 번역·소개할 명치천황의 와카를 선정했다. 그래서 선정된 명치천황의 와카가 기본적으로는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에서 페이지순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²⁶⁾

4. 맺음말

춘원 이광수는 1941년 5월에서 9월에 걸쳐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신시대』에 총 41수를 발표했다. 「명치천황어제근역」이 그것이다. 「명치천황어제근역」이라는 번역 텍스트는 국어국문학계와 일어일문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나오는 것으로는 임종국(1966)의 『친일문학론』, 이경훈(1988)의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최현식(2008)의 「이광수와 ‘국민시」가 있는 정도다.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이광수가 왜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나 곧 번역의도를 고찰한 것이거나, 그의 번역 텍스트인 「명치천황어제근역」에는 어떤 와카가 게재되어 있는가 곧 번역작품을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명치천황어제근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구자는 박상현이다. 우선 그(2014a)는 「춘원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연구」에서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번역문에 조선어역과 동시에 일본어원문도 함께 제공하는 번역 방식 곧 대역을 선택한 필연성과 함께, 와카의 리듬인 5음·7음·5음·7음·7음을 지키면서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긴 필연성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다음으로 그(2014b)는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사

26) 참고로 <표2>에 나오는 B, D, F, O, P의 『明治天皇御集』도 모두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와 번역 텍스트인 「명치천황어제근역」에 실려 있는 명치천황의 와카는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적 위치 연구-춘원(春園) 이광수의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에서는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이 갖고 있는 번역사적 위치를 고찰했다.

하지만 방금 인용한 이와 같은 몇몇 연구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수가 「명치천황어제근역」을 발표했을 때, 그가 무엇을 번역대본으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명치천황어제근역」과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광수가 궁내성장관 『明治天皇御集』를 번역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²⁷⁾

【참고문헌】

- 박상현(2014a)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 『일본학연구』 제41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191-211쪽.
- _____ (2014b) 「『明治天皇御製謹譯』의 번역사적 위치 연구-춘원(春園) 이광수의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171-172쪽.
- 이경훈(199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4쪽.
- 이광수(1941a) 「いさ船」 『신시대』 신시대사. 20-21쪽.
- _____ (1941b) 「明治天皇御製」 『신시대』 신시대사. 32-35쪽.
- _____ (1941c) 「明治天皇御製」 『신시대』 신시대사. 42-45쪽.
- 임중국(1983)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초판 1966). 445-446쪽.
- 최현식(2008) 「이광수와 ‘국민시’」 『상허학보』, 상허학회. 324쪽.
- 岩波書店(1938) 『明治天皇御集(岩波文庫): 宮内省藏版』. 37-126頁.
- 明治会(1941) 『明治天皇御集』 新潮社. 1-258頁.

27) 궁내성장관을 저본(底本)으로 한 『明治天皇御集』에는 1939년에 신조사(新潮社)가 신조문고(新潮文庫)로 발간한 『明治天皇御集』도 있다. 따라서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이와나미문고의 『明治天皇御集』가 아니라 신조문고의 『明治天皇御集』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도서관에 신조문고의 『明治天皇御集』가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역시 이와나미문고의 『明治天皇御集』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설사 이광수가 신조문고의 『明治天皇御集』를 번역대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신조문고와 이와나미문고는 모두 궁내성장관을 저본으로 한 『明治天皇御集』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광수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궁내성장관을 저본으로 한 『明治天皇御集』를 참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要 旨

春園李光洙は1941年5月から9月にかけて、明治天皇の御製計41首を朝鮮語で訳し、それを『新時代』に発表した。「明治天皇御製謹譚」がそれである。「明治天皇御製謹譚」というものはとても興味深いテキストであるものの、それに関する先行研究は未だに多いとは言えない。林鍾国(1966)『親日文学論』、李京埴(1988)『李光洙の親日文学研究』、崔賢植(2008)「李光洙と‘国民詩’」があるほどだった(いずれも韓国語論著)。これらの先行研究は主に李光洙がなぜ「明治天皇御製」を朝鮮語で翻訳したか、すなわち翻訳意図を論じたり、「明治天皇御製謹譚」というテキストにはどんな御製が載せられているのか、すなわち翻訳作品を考察したものがほとんどだったと言える。

最近「明治天皇御製謹譚」の研究に力を入れている研究者は朴相鉉である。まず、彼(2014a)は「春園李光洙の『明治天皇御製謹譚』研究」の中で、李光洙が明治天皇の御製を朝鮮語で訳した際、翻訳文に朝鮮語訳と同時に日本語原文も提供する翻訳のやり方、すなわち対訳を選んだ必然性や、5・7・5・7・7を尊重しつつ明治天皇の御製を朝鮮語で翻訳した必然性について論じた。次に、朴(2014b)は「『明治天皇御製謹譚』の翻訳史的な位置研究-春園李光洙の翻訳のやり方を中心として」の中で、「明治天皇御製謹譚」の翻訳史的な位置づけを試みた。ところが、今まで見てきたような先行研究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李光洙が何を翻訳台本として「明治天皇御製謹譚」を発表したかについて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かった。本稿では李光洙の「明治天皇御製謹譚」と宮内省藏版『明治天皇御集』を比較した結果、彼は宮内省藏版『明治天皇御集』を底本として明治天皇の御製を訳した可能性が相当高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キーワード： 李光洙、和歌、明治天皇御製謹譚、翻訳、翻訳台本、朝鮮語

투 고 : 2014. 2. 28
1차 심사 : 2014. 3. 15
2차 심사 : 2014. 4. 5